

뉴스레터

DKUMC



제2권 8호 2012년 8월 5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송종남 목사

“목장심방을 하려고 합니다”

담임목사 칼럼

심방이란 목

회자가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므로 신앙 성장에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 심방의 유형을 보면 대심방, 일반 심방, 특별 심방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대심방으로 각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각 가정마다 방문하는 대심방이 아니라 각 목장을 방문하는 목장심방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속회가 목장으로 바뀌었는데 각 목장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살피고 목장을 통해서 각 성도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목장은 곧 교회입니다. 새롭게 목자로 임명 받으신 분들은 목장이라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한다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장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심방을 할 때는 될수 있는대로 모든 목원들이 다 참석할수 있는 날을 정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장에서 하는 대로 삶을 나누는 식으로 저도 한명의 목원이 되어서 참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만찬을 거행 할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마시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목장에서

거행하면서 구속의 기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목장은 한마디로 목원들 간에 좀 더 친밀하게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므로 듣는 말씀에서 행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바꾸어보자는 의도에서 새로 시작한 소그룹입니다.

또한 새신자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어색하다해도 먼저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친해지도록 하고, 교회로 인도한다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목원들이 더 좋다는 말이 우리교회의 목장과 목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만나고 보살피고 그리스도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친교를 나누다 보니 사실 피를 나눈 사람들보다 더 친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보다 더 진한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맺어진 이 영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며 더 나아가서 가족보다도 더 영원하고 친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목자들은 많은 목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라며,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이번 목장심방을 통해서 각 목장의 사정과 형편을 좀더 자세히 살피고, 또 건의사항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목장의 활성화와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강조하듯이,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며 부흥되어 나아 갈 때 우리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 목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되고 친교의 깊이가 깊어가며, 형제와 자매의 삶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빕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목장심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겠습니다.

아이티선교와 하나님의 선물

2010년 1월 12일천지가 개벽할 지진이 아이티의수도 포르토프랭스를, 특히 그중 시티쉴레이를 덮쳤습니다. 그동안 사이비 종교와 부패로 찌든 정부의 무력한 치정 아래 있었던 아이티섬에 사상초유의 재해가 벌어졌고 전인구의 1/3인 30만명이 지진에 피해를 있었으며 22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먹는 물 사정마저 열악하여 콜레라로 인한 감염자가 40만이 넘고 6천여명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고, 그 중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며 세계 여러선교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구조작업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교회에서는 지난 2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치안이 불안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시티쉴레이에서 LOVE AND HOPE 센터를 짓고 선교활동을 하시는 김승돈선교사님을 도와 미흡하나마 아이티지역선교에 일임을 하자고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을 붙들고 그 길로 나서려는 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큰 마음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짧은 경험이지만 지난 7년 동안 도미니카와 아이티선교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이 모든 사역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짧은 경험에서 얻은 고마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 사역을 도와 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뒤에 남아서 기도와 간구로, 물질로 도와 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고 그러한 증거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정수기사역에도 일났습니다. 지난 성만찬헌금을 통하여 아이티지역에 수동정수기를

보내자고 헌금을 하였을때 평상시 성만찬 헌금의 5-6배가 넘는 헌금, 정수기 한대를 구입하고도 남은 헌금이 모여졌고 또한 한국 광주과학기술원 조재원교수(수동정수기를 개발하신장본인)께서 첫 정수기 한 대를 무료로 기증하시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운송 문제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김상돈집사께서 모든 운송비용과 그 과정을 책임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미니카의 전채덕목사님이 도미니카에서 한국과 현대차무역을 하시는 집사님을 연결하여 주셔서 현대차 안에 정수기를 선적하여 무료로 운송을 할수 있게 되었고 정수기는 현대차와 함께



도미니카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믿지 못할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힘과 아이디어로는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맞는 사람을, 알맞는 장소에서, 알맞는 시간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일 앞에 어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기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세상의 여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세상적인 여행에서는 맛 볼수 없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루의 힘든 사역을 마치고 선교센터로 돌아와 지친 몸을 충분치 못한 물로 씻고 휴식을 취하면서 속으로 며칠만 견디면 미국으로



돌아가 따스한 샤워를 하고 쉴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로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건넨 나의 질문에, “나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낮에 보고온 고아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태로 밤새도록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쉬고 있는 자신이 편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선교사님의 진정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랑을 보면서 이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는 돈주고 살수 없는 그 어느 세상의 고급 여행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이었습다.

이러한 영적경험은 내가 한일의 백배 아니 천배가 넘는 하나님의 선물인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조금이라도 맛보았고 그 선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동시에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은혜의사역에 동참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과라니 부족은 미시오 이과수에 사는 인디오과라니부족입니다. 알젠티나 부에노스 아 이레스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과수폭포로 유명한 이과수로부터 1 시간45분정도 밀림을 향해 들어 가면 333년 전 포르투갈 정부에 의해서 말살

된 종족으로 9명의 어린이들만 살아 남아서 정글에서 비문명인으로 살면서 5000명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역사속에서 잊혀진 과라니 부족들이 사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 “과라니”라는 단어는 “전사”를 나타내는 말로서 지금 과라과이인들과 마찬가지로 옛날의 과라니족도 우호적이며 공손한 성격이나 일단 전쟁에서는 강렬하고 물러설 줄 모르는 종족이며 과라니족의 풍부한 식물에 대한 지식과 약초 사용은 현재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라니족들의 언어인 과라니어는 미주 대륙 토속 인디언들의 언어중 가장 발달한 언어로서 지금도 과라과이의 공용어중의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과라니족은 과라니족은 계절에 따라 장소를 옮기면서 주로 숲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라니족은 유럽인이 들어오기까지 먹을 것이 풍족한 자연환경속에서 화전을 일구며 수렵과 어업을 하

며 살던 사람들이며 주술사를 두고 추장과 공동으로 부족을 이끌 정도로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부족이었습니다. 이 과라니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광보선교사님께서 1998년 인디오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아 과라니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복음사역, 교회개척, 제자양육 및 영농사역, 토지개발, 식생활 개선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신학교사역을 통한 교육사역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선교를 통하여 우리교회에게 섬김의 통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미선교를위해 사랑의 섬김과 선교헌금, 여러모양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하시는 새벽기도팀들께 감사드립니다. 과라니의료선교팀 조영훈집사,조현희집사,안세현장로,안의숙권사로 8월 7일부터 16일 일정입니다.

기도 제목

- * 인디오 과라니 부족 47마을 5000여 명이 다 구원을 받도록
- * 계속해서 47마을에 주의 전을 세울 수 있도록
- * 47마을에 젊은 주의 일꾼들을 훈련시켜 남미복음화에 그릇들이 되도록
- * 항상 이광보 선교사님의 가정에 성령충만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목장 선교지 소개

자마(JAMA)목장



자마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오너쉽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 그리스도의 대사를 키우며, 무엇보다도 발 딛고 사는 땅을 영적, 도덕적으로 살리기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본 교회의 배성호 목사는 자마의 이사진에서 예수 치유와 건강 사역 (JH&H - Jesus' Healing & Health) 의 네셔널 디렉터로서 사역하고 있으며, 본 교회에서는 이명수 장로님과 그 목원들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자마 목장이라 이름하고, 자마의 New Awakening Conferences, 중보기도 컨퍼런스, 그리고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GLDI) 를 통해서 치유 사역의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배 목

사를 성원하고 나아가 자마의 전 반적인 일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후원하여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

싸이엠목장

저희 싸이엠 (Siam)목장을 소개합니다. Siam 은 태국, Thailand 의 본래 이름으로 '자유의 땅' 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불교가 주 종교(93%)이고 기독교가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1%이나 무슬림은 20년전 1%에서 현재 4%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족이 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콕한인연합교회 김 용식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태국과 그 주위 나라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에 하시고 계신 선교사역에 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내보내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그일에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역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캄보디아는 동족간의 전쟁으로 1975-1978년에 전체인구의 1/3 (2백만명)이 대학살을 당하고 70만명이 이웃나라 태국으로 피난해있다가 절반은 미국과 프랑스, 캐

나다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머지는 상처로 얼룩진 고향땅으로 돌아간,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태국 방문때 느낀것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생활에 우상숭배의 삶이 너무도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는곳마다 불상이 있고 (심지어 차안에 까지도) 왕이나 어떤 존경하는 인물들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싸이엠 목장에서는 태국과 그 주위나라의 영혼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문해서 섬기는 일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싸이엠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윤섭 목사



교인 탐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전 12:27)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찾아 그 분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취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살림! 이번에는 김건석 성도님 가정을 만나 그 분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김태영, 미선, 태훈, 건석 가족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DKUMC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중학교 이후로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교회에 나간다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십니다. 저희 와이프는 불교집안에서 자라서 아직 교회생활이 어색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2. 델라웨어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10년전에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다행히 졸업후 델라웨어 듀폰사에서 잡오퍼가 와서 5년전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 새교우 성경공부는 어떤 유익이 있으신가요?

송목사님과 배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교회연혁과 신자로서의 자세 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색할수 있는 분위기를 두 분 목사님이 잘 풀어 주셔서 교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와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희 식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모두 잘 적응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의 지도아래 은혜받는 교회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가족들이 즐겨하는 취미생활?

음악을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전공도 음악과 공학의 중간지점인 음향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사실 음악이라기 보다는 공학이지만 각종 소리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소리를 줄이거나 더좋은 소

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사진찍는 걸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자주 시간내서 나가기가 힘든데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동안 특별한 생각없이 살았는데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점이 삶의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일은?

제가 미국에 오기전에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학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유학준비를 하는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내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제가 첫 기수에 선발되서 두달간 합숙하면서 유학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가지 않았다면 미국에 오기 힘들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의 전환점은 미국에 유학을 오고 정착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영어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된것이 있고 아마도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고 도와주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

이제는 어려운 결정을 할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르켜 주신 길을 갈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꺼라 생각해서 마음이 더욱 든든합니다.

(인터뷰: 강태희 집사)

아빠와 함께하는~

DKUMC 여름

남선교회 주최 SUMMER CAMPING

캠핑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담그기...

일시: 8월17일(금)~18일(토)

장소: French Creek Park

7월달 포토 갤러리



7월 29일 - 아동 부 Big Splash Water Day



7월 15일 교회 33주년 창립 기념



7월 15일 명예권사 및 목양장로 임직식

August 2012

8월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왕영두 목장 주최 수요일예배	2	3	4
5 * EM연합가족예배 목장 지도자 훈련 장로모임	6 여선교회 Meals on Wheel s	7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8 * 김윤섭 목장 주최 수요일예배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9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0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1 교육부 Welcome Banquet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2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3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4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5 * 강규원 목장 주최 수요일예배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6 아르헨티나 과라니 선교	17 남선교회 주최 아빠와 함께하는 여름 캠핑 TRIP	18 남선교회 주최 아빠와 함께하는 여름 캠핑 TRIP
19	20	21	22 * 차구현 목장 주최 수요일예배	23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24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25 여선교회 선교학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26	27	28	29 * 최준용 목장 주최 수요일예배	30	31	

9월의 일정

- 9월 2일(주일) EM 연합가족 예배, 목장지도자 훈련
- 9월 3일(월) 여선교회 Meals on Wheels
- 9월 8일(토) 교육부주최 Teacher's College
- 9월 15일(토) EM Welcome Party
- 9월 22일(토) EM College Praise Night
- 9월 29일(토) 청소년부 노숙자 선교



예배와 모임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 ~ 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월, 금요일	오전 10:00
아름다운 학교	목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

